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前號에서 계속〉

브레인 스토밍

1. 기 원

브레인 스토밍은 1941년 BBDO 광고대리점의 「알렉스 下오스본」이 고안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회의기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30여년전부터 회사와 학교의 발명·발견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많은 회사가 이 기법을 이용하여 집단으로 새로운 발명을 해냈고, 학교(초·중·고·대)에서는 과학반 운영에 활용하여 놀라운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일합성이 이 방법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큰 성과를 올린바 있으며, 학교는 부산에 있는 거성중학교 발명·과학반(지도교사 朴文甲)이 처음 활용하여 놀라운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에서는 아직도 생소한 기법으로 폭넓은 홍보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2. 활용범위

브레인스토밍의 활용범위는 실로

넓다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회사의 집단 기술개발 및 학교의 과학반 운영은 물론 각종 정책회의 및 가족회의에 까지 활용되고 있다.

3. 정 의

한마디로 말하면 몇 사람인가의 사람, 즉 작은 집단이 한가지의 문제를 놓고 서로 아이디어를 내는 일종의 회의기법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발명·발견)의 단계중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테크니크라 할 수 있다. 원래의 의미는 정신병 환자의 두뇌착란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것이 전용되어 이 종류의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가리키게 되었다. 집단의 효과를 살리고 아이디어의 연쇄반응을 내자고 하는 것이다.

4. 규 칙

지금까지의 회의도 따지고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있었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의 회의와 브레인 스토밍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것이 브레인 스토밍의 핵심이자 생명이라 할 수 있다.

브레인 스토밍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의 규칙이 있고, 이 규칙은 어김없이 지켜져야 한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의 회의와는 분위기부터가 다르고, 그 결과도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4가지 규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좋고 나쁘다는 비판 엄금. 둘째, 자유분방한 분위기 보장. 셋째, 질(質)보다는 양(量)을 구함. 넷째, 타인의 아이디어의 개선·결함을 구함 등이다.

위 4가지 규칙하에 10명 정도의 집단이 한가지 문제를 놓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회의는 상대방의 의견(아이디어)에 비판을 하는 사람이 많아 갑론을박의 논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브레인 스토밍에서는 있을 수 없다. 만약 비판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 리더가 그것을 억제하기로 되어있다.

5. 4가지규칙을 둔 이유

브레인 스토밍의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왜 4가지의 규칙을 만들었고,

어김없이 지키도록 한 이유를 항목별로 알아보기 하자.

(1) 좋고 나쁘다는 비판 엄금

인간은 대부분 자기중심으로 사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면 곧 흠을 잡는다. 흠을 잡히면 실망한다. 실망하면 모처럼 나오려고 하던 아이디어까지 기어들어가 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에 외교질이 되어 말다툼을 한다. 갑론을박으로 양쪽이 시뻘겋게 되면 감정적으로 되어오기 때문에 심리영역은 극히 좁아진다. 이것 또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게 된다.

반대로 비판이 없으면 의외히 아이디어를 내게 되며, 따라서 아이디어 수도 많아진다.

미국의 시험결과에 따르면 비판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아이디어의 생산성이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에 대해서는 재미나는 실험을 할 수 있다. 필자의 실험에서도 미국에서의 실험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독자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 보기 바란다.

(2) 자유분방한 분위기 보장

이것은 보통의 사고법이 아닌 비약적인 아이디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아울러 첫번째 규칙인 비판 엄금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발한 안(案), 의외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자유분방하게 내라. 그것은 두뇌를 강하게 자극한다. 따라서 모두의 머리에 영감의 불을 붙이게 된다.

히로시마를 폐허로 만든 원자폭탄을 축소하면 성냥갑 정도의 것애 들어간다. 이런 아이디어도 나온다. 이것은 자유분방한 머리의 작용이

다. 이처럼 때로는 엉뚱한, 때로는 기발한 아이디어는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만 가능하다고 오스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3) 질보다는 양을 구함

「아이디어는 양이다. 양에 비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오스본의 주장이다.

발명왕 에디슨은 단하나의 아이디어를 얻기위해 10권의 대학노트를 새까맣게 만들었다고 한다. 「나쁜 아이디어도 안나오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는가. 먼저 나쁜 아이디어라도 좋으니 50개든 100개든 내어보라. 그때부터 시작된다.」 진주왕 미끼모포의 주장이다.

아이디어는 좋은 것만 내보자고 잔뜩 도사리면 도리어 나오지 않는다. 양을 많이 내고 있는 동안에 기발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러나 학자들 중에는 아무리 양이 많아도 질이 좋지 않으면 안된다며, 브레인 스토밍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학자는 브레인 스토밍을 실제로 해본일이 없는 학자로서 일반적인 견해요, 탁상공론이다.

(4) 타인의 아이디어의

개선·결합을 구함

이것은 타인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냈지만 그것을 받아서 좋은 점을 결합시켜 자기 아이디어로 내도 좋다는 것이다.

6. 브레인 스토밍의 방법

브레인 스토밍의 참석 멤버는 몇명 정도가 가장 좋은가? 이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된 문제다. 어떤 경우에는 100명중의 멤버를 모아 한 일도 있다. 미국 정부 훈련제에

서는 200명의 멤버를 모아 성공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서 30여년전에 걸쳐 활용해 본 결과 멤버는 12명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1명은 리더가 되고, 다른 1명은 세크리터리가 된다. 리더는 회의를 진행하고, 세크리터리는 나온 아이디어를 기록한다. 나머지 10명은 오로지 아이디어만을 낸다.

그러면 이 멤버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10명중 5명은 레귤러 멤버. 나머지 5명은 게스트로 맞이한 경우가 이상적이다. 이는 손님, 즉 브레인 스토밍에 대역서의 무경험자 외의 언제나 브레인 스토밍의 멤버로 되어있는 사람을 섞으면 게스트로부터의 각도가 다른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며, 레귤러 멤버는 활발히 아이디어를 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같은 멤버로 브레인 스토밍을 하고 있으면 점차 틀에 박힌 아이디어만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게스트는 때에 따라 바꾸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회의장은 리더를 중심으로 2자형으로 책상을 배치하고, 멤버들 서로가 그다지 익숙하지 않으면 명찰을 준비한다. 오스본의 브레인 스토밍에서는 전원이 목에 커다란 명찰을 걸었다고 한다. 세크리터리는 리더 옆에 위치하여 나온 아이디어를 기록한다.

기록은 멤버들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커다란 종이를 붙이고 매직잉크로 하는 것이 좋다. 이는 타인의 아이디어의 개선·결합을 위해서이다.

세크리터리는 발언자의 의견을 잘 듣고 능숙하게 정리하여 기록해야 한다. 리더와 호흡이 맞으면 리더가 발언자의 의견을 정리하여 세크리터리에 건네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계속> <王然中記>